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영택**

논문초록

본 논문의 주된 관심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 가져야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관련된 것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교회가 어떤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교회교육을 위해 교회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 신학적, 역사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색은 올바른 교회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와 사회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논문의 마지막에는 교회가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떤 형태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미래세대 교육,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 교회의 교육적 사명

* 본 논문은 제 10회 기독교학교육연구소 주최 학술대회(2015.12.05. 새문안교회)에서 발표된 내용임.

** 우석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5년 12월 16일 접수, 2016년 1월 20일 최종수정, 2월 5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교회교육의 위기를 염려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다. 위기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을 제안하지만 위기적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교회교육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위기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교육의 개선과 회복을 위한 노력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 본 논문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교회교육의 의미와 범주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것보다는 넓게 사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교회교육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 가져야 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관련된 것이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교회가 어떤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어떤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탐구 주제를 설정한 배경에는 기존의 전통적 교회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교회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교회학교의 학생들에게조차도 교회교육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교회학교 외부적인 요인이나 교회교육의 교수방법과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보다 중요하게는 기존 교회교육의 본질과 목적 자체가 갖는 한계와 관계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즉, 교회교육의 목적이 교회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또한 교회교육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으로만 한정된다면 교회교육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회교육이 학생들의 현세적, 전인적 삶에 관심을 갖는 대신 내세적 구원과 종교적 영역만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매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험겨운 문제들에 대해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말이 교회교육의 목적이 성경교육이나 신앙교육으로부터 탈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교회교육은 성경을 토대로 하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되 그 신앙이 학생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나아가 교회교육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교육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교육학자들은 기독교교육이 인간에 대한 통전적 이해 위에 서서 사회의 공공선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상진, 2010; 박화경, 2006; 장신근, 2013;

Wolterstorff, 2004). 기독교교육은 사람의 영혼 뿐 아니라 생명의 전인적 차원을, 내세의 생명 뿐 아니라 현세의 삶을, 개인의 생명 뿐 아니라 인류공동체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 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박화경, 2006).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교육은 이제 그 의미와 관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교육이 사람들의 개인적 신앙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적 삶과 창조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다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울타리 밖의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려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회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교회교육을 위해 교회가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 신학적, 역사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탐색은 올바른 교회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회와 사회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교회가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어떤 형태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근거

여기서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교회는 왜 교육적 관심을 교회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해야 하는지, 사회에 대한 교회의 교육적 책무성은 무엇인지, 교회는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문제에 대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탐구를 실시한 후 교회교육의 이중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신학적 논의

건강한 미래세대의 양성을 위해서 교회는 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 교회가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아동과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야한다. 나아가 사회가 아이들이 살아가기에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공동체가 되도록 교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역을 통해 교회는 교회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교회 학생들과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배움의 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유는 교회가 지역사회나 주민들에 대해 갖는 관심의 폭이 협소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이나 주민들의 총체적 삶의 안녕(wellbeing)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을 주로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회교육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볼 때 교육의 목적과 범주는 훨씬 넓어지게 된다. 하나님나라는 그 관심이 우리 영혼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이르고, 그 통치가 교회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와 온 우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 교육 모델’에 따르면 교회교육은 광대한 하나님나라의 실현을 위해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교육의 목적은 하나님나라 구현에 있고, 교회교육의 내용은 인간 삶의 전 영역과 관계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내용 전부가 교회교육의 관심사여야 하고,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교회교육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교회 학생들이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로 교육적 관심이 확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학생들의 종교 및 신앙생활을 넘어 전 삶에 관계함으로 학생들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의 문제가 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다.

신구약성경의 핵심주제인 하나님나라 개념은 구약성경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샬롬(shalom)의 개념과 유사하다(Plantinga, 2002: 103). 그러므로 하나님나라 교육모델은 ‘샬롬의 교육’이라는 기독교교육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강영택, 2007; Wolterstorff, 2004). 샬롬의 교육에 따르면 샬롬은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샬롬의 교육은 교회교육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키는 좋은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 2004)는 기독교교육의 목적이 학

생들로 하여금 살림을 경험하게 하고 살림을 구현하게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기독교 교육은 먼저 학생들에게 다른 대상-하나님, 이웃, 자연-에 대한 지식을 배움으로 갖게 되는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는 다른 대상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므로 기독교교육은 이웃/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의 관계에 주목하게 한다. 더구나 성경에서 사용되는 평화(shalom)에는 정의가 내포되어 있다. 즉 어떤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사회에는 참된 평화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윌터스토프가 말한 대로 정의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권리를 향유하는 상태’로 이해할 때 이웃이 권리를 상실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강영택, 2007: 68-83).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이 교회와 이웃하는 지역사회에 무관심한다. 교육의 내용도 채울 수 없고, 그 목적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살림의 교육은 교회교육이 사회를 향해 관심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함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교육적 책무성은 공적신학(Public Theology)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강조될 수 있다. 공적신학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기독교신앙의 사사화(私事化) 현상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다. 공적신학은 기독교인들의 공적 신앙양육과 공적공동체로서의 교회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하여 공적신학이 추구하는 바는 여러 차원의 공적 삶에서 다른 전통이나 학문과 대화를 수행하면서 공적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장신근, 2013: 18-19). 이러한 공적신학의 입장에서 서면 교회는 교인들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신앙 교육에 힘쓰게 되고, 공교육과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교회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교회는 공교육의 학교들과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공적신학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적신학은 교회사역의 방향이 사회를 향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공적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의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장신근, 2013: 52-59).

이상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세 가지 기독교교육적 접근들 -하나님나라 교육 모델, 살림의 교육 패러다임, 공적신학에 기초한 교육- 은 기존의 교회교육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넘어서도록 요구한다. 먼저, 교회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종교적 지식과 행동의 성장에 머물지 않고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교회교육의 내용 역시 성경과 교리에 대한 이해 교육을 넘어서 성경의 관점으로 사회와 삶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탐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교육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두어야겠지만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들과 성인에게까지 필요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2.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한 역사적 논의

기독교와 학교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기독교교육이 역사적으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음을 보여줌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초대교회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는 교회교육이 주로 교인의 양육이나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지만 종교개혁기 부터 그 관심이 확대되어 교회는 사회의 지도자를 교육하는데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운동은 사회의 불우한 아동들을 교회의 교육적 관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 사회를 향해 갖던 교회의 교육적 관심의 전통이 19세기 중엽 이후 매우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한 말 교회들이 가졌던 사회와 민족을 위한 교육적 관심이 일제강점기 이후 점차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초대교회시대에 존재했던 세례지원자학교(catechumenal school)나 고등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는 교회에 새로 입교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교리교육을 하고 기독교적 가르침을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변증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

중세시대에 설립된 수도원학교, 성당학교, 중세대학은 “기독교인 형성과 양육의 통로로서의 학교”이거나 아니면 “기독교 지도자 양성의 통로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장신근, 2013: 22-28). 즉, 중세시대까지 교회의 교육적 관심은 대체로 교회 내부에 머물러있어서 바람직한 사회의 형성이나 사회지도자 양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교회의 교육적 관심의 협소성은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루터는 교육이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였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양금희, 1999: 43-47). 루터는 교회의 교육적 과제 중 많은 부분을 학교가 분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루터에 따르면, 학교는 영적나라와 세상나라 모두의 존재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기관이다. 그는 학교교육을 통해 영적 나라에 필요한 신학자와 목사를 양성할 뿐 아니라 세상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훈련시켜야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금희, 1999: 62-66). 그래서 이전까지 학교교육의 주 대상이었던 성직자와 귀족중심의 교육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를 교육하는 대중교육을 강조하였다. 독일에서 대중 시민교육의 터전이 된 독일 공교육의 형성에는 이러한 루터의 영향이 매우 컸다.

칼빈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교육을 “부족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으로 보고 이를 “하나님의 교육”이라 했다(양금희, 1999: 124).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교육과 관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학교교육이 교회교육의 연장선으로서 교회의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이라고 보았다.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학교의 실제적 주체는 교회여야 한다고 하였다(양금희, 1999: 144). 그는 학교의 목적이 목사를 양성하는 것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칼빈은 실제 스위스에 제네바아카데미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양성하고 시민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에게 학교교육은 종교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개혁의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였다. 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관이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교회의 교육적 관심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

어 사회에 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기독교교육의 사명이 18세기 이후에는 더욱 확장되며 보편화된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주일학교운동이었다. 1780년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심각한 빈부격차와 노동착취 그리고 범죄 등의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영국성공회의 신실한 교인이었던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는 노동을 쉬는 주일날 하층계급의 아동들을 모아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주일학교는 영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가 주일학교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주일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과 성경교육을 통해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주일학교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분리적, 폐쇄적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그 시대 학교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박상진, 2010).

주일학교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다. 도입 초기 18세기 말에는 미국에서 주일학교는 교회교인을 훈련하는 장소인 동시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 들어 미국의 주일학교는 원래의 성격이었던 자선학교와 대중교육의 장이란 특징에서 개인적 회심과 경건을 강조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교육과 교회확장의 수단으로 성격이 변모해갔다(장신근, 2013: 44). 주일학교는 점차 교회학교로서의 성격이 고착화되면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교육에 큰 영향을 준 주일학교가 원래 초기의 역사에서는 사회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교육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말 기독교교육을 담당했던 교회와 기독교학교들은 외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의 선조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교회들은 청소년들을 본격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설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학교 혹은 교회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 실제생활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차 책임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었다(임회국, 2013: 90). 그래서 이들 학교들은 성경과 기도 등 경건교육과 영어, 수학 등 지식교육을 함께 가르쳤다. 그런데 이들 학교가 목표로 한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민족과

사회에 대한 봉사과 헌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었다. 대성학교를 설립, 운영했던 도산 안창호가 강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살며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져서 조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란 말이 당시 기독교교육에서 하고자 했던 본질을 잘 보여준다(강영택, 2013: 141). 이처럼 사회와 이웃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었던 기독교교육이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약화되고 협소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교회의 신앙교육과 시민교육의 이중적 책임

교회와 학교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교회가 교육을 통해 기독교인 형성과 양육을 목표로 해왔던 동시에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개혁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전통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교육해왔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공적신학의 입장에서나 살림의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직의 개념은 당연히 시민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실천과 같은 사회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개인의 신앙과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편의상 신앙교육과 시민교육을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두 가지 교육 즉, 신앙교육과 시민교육의 이중적 책임에 대해 존 콜만(John Coleman)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콜만은 한 인간이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직의 삶을 살게 되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직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둘은 종종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Coleman, 1989). 그에 따르면 제자직의 본질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길(way)’을 이해하고 따라 사는 것인데, 이는 현재의 삶과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구약성경에서 강조하는 과부, 고아, 이방인,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과 신약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강조(대표적으로 선한사마리아인 비유)가 제자직의 주요 방향성이라고 본다. 시민직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보다 정의로운 민주사회가 되도록 시민으로서의 책

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자직과 시민직 모두 이웃사랑과 사회공동체와 깊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시민직 교육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

콜만은 예수회신학자 블라델(Louis van Bladel)의 주장을 근거로 교회에서의 제자직 교육은 기독교인의 시민적 의무가 국가가 이해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막중함을 알려준다고 한다. 블라델은 기독교신앙의 세 가지 성격을 (1) 약속으로서의 복음; 유토피아, (2) 심판으로서의 복음; 반문화(counterculture), (3) 사명으로서의 복음; 새로운 질서의 건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제자직 교육은 정치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비전을 갖게 한다. 인류역사에서 노예제도 폐지, 노동조합의 발흥, 여성참정권 획득 등과 같은 획기적인 사건들은 이러한 유토피아적 상상력과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제자직 교육은 죽음, 부자유, 부정의의 편에 있는 현 우리사회의 문화를 거부하고 이에 대항하는 반문화적 사명을 갖게 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

콜만은 로마서 13: 1-10을 근거로 기독교인에게 제자직의 의무가 시민직의 의무를 능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서는 기독교인 역시 시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기독교인의 시민직에 대한 강조이다. 그러나 로마서 13: 8-10은 기독교인의 시민직을 넘어서는 제자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제자직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로마서를 통해 콜만은 이웃사랑이라는 제자직의 수행이 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윤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제자직과 시민직의 이중적 책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콜만의 주장에 근거해서도 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가져야함을 알 수 있다.

Ⅲ. 교회와 지역사회 간 연계의 실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깨달은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섬김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교회가 지역사회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하는 교육봉사 활동들이다. 이는 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역들로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일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특정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나서는 일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이자 교육의 장이 되므로 지역사회를 보다 건강한 마을공동체로 만드는 일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운동시민단체들과 교회가 협력활동을 하는 것이다. 교회가 직접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어렵다면 그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일은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범주로 교회가 교육을 위해 하는 일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교회의 지역사회 교육봉사 사례

(1) 장학사업과 학사 운영

교회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장학사업이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가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재정지원을 해주는 활동이다. 이러한 장학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학사도 운영된다. 농어촌 지역 출신의 학생이 도시의 (대)학교에 유학 와서 생활하는데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학생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은 일차적으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후원을 통해 그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도 하다.

많은 교회들이 장학사업과 학사운영을 하고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경성교회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경성교회는 출석교인 150명의 작은 교회이지만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본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 뿐 아니라 인근의 중·고

등학교에 다니는 어려운 학생들을 매해 선발하여 대신 수업료를 내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인근 학교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성교회는 2000년부터 농촌지역에서 유학 온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경성 학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적은 관리비만 학생들로 부터 받고 있다고 한다(주재일, 2013).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시민교회 역시 지방 출신 학생들을 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근처의 집들을 임대하여 9곳의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학사에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학사규칙은 각 학사의 구성원들이 정하도록 하고, 담당 목사와의 정기적인 면담이나 1년에 두 차례 있는 전체 학사수련회를 통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 대한 돌봄을 베풀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직장 초년생들을 위한 청년 학사를 운영하기도 한다(뉴스앤조이 편집국, 2015).

(2) 지역도서관

지역 도서관 운영 역시 현재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중요한 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도서관 특히 어린이도서관이 잘 구비되어있지 못한 지역이 여전히 많다. 그런 곳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도서관은 지역 주민들 특히 아동과 부모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교회가 운영하지만 대개 신앙서적 보다는 일반도서가 많이 구비되어 있고, 교회출석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서로 만나서 교육정보도 나누고 이웃 간의 정도 쌓는 사랑방의 역할도 한다.

은평사랑교회가 운영하는 은평사랑어린이 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의 좋은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은평사랑어린이 도서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종이접기, 미술교실, 독서지도, 영어교실, 자연탐방, 영화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이진호, 2003). 인천제2교회가 운영하는 꿈나래도서관은 인천시 중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어린이도서관으로 어린이 관련 책이 9천권이 넘어 지역의 어린이들과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암교회가 운영하는 작은콩도서관 역시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이다. 도서관의 개관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들의 참여

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도서관의 로고와 명칭을 정할 때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결정하였고, 지역주민들을 바자회나 강연회에 초청하고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 기증을 받기도 하였다(조주희, 2012). 성남시에 있는 고기교회가 운영하는 밤토실도서관 역시 어린이도서관이다. 마을의 필요에 따라 2년간 착실한 준비 끝에 개관한 ‘밤토실’은 마을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고 책과 관련된 인형극놀이, 독서여행, 백일장 등의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살아있는 공부를 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진행된 ‘그림책으로 세상보기’ 수업을 통해 그림책을 보면서 인권, 평화, 환경과 같은 시대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공부하기도 한다. 밤토실은 학부모들에게도 서로 교제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뉴스앤조이 편집국, 2015).

(3) 공부방과 방과후교실

교회가 공부방을 개설하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일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취약계층의 주민들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방과 후에 자녀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더구나 사교육을 시킬 형편도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아동들을 맡아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이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암교회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많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일 먼저 결정한 사역이 방과후교실이었다. 그만큼 방과후교실은 지역사회의 요구가 많은 사역이다. 성암교회 방과후교실은 6명의 교사가 48명의 저학년 중심의 어린이들을 방과 후에 보살피는 돌봄사역이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간식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통해 놀이와 쉬과 보살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교실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도 한다(조주희, 2012).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아름다운주님의교회는 2년간의 지역조사를 한 뒤에 방과후교실인 ‘다림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0년에 개설하여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등록학생 수가 100명을 넘고 대기자만 80명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등록교인 80명 정도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다림교육에서는 방과 후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영어교육은 교회 청년인 미국에서 유학한 전문교사가 맡아서 발표, 연극, 동요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르친다. 교육비가 전액 무료인데 독특한 점은 대상학생을 가정형편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 방과후교실이 취약계층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다림교육은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일반아파트 아이들을 함께 받는다. 그것은 다림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 방과후학교에서는 학부모교육을 의무화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회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교육하고 있는 셈이다(뉴스앤조이 편집국, 2015).

(4) 카페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역도서관과 함께 연계해서 운영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 성암교회가 운영하는 바오밥나무카페는 지역도서관과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동안 부모들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카페의 일부 공간에서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카페의 이름도 주민 공모를 하였고, 메뉴나 가격을 정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카페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문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나아가 바오밥나무카페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운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조주희, 2012).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로 알려진 미국 워싱턴DC의 세이비어교회(The Church of the Saviour) 역시 70가지가 넘는 사회봉사 활동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서점과 카페를 함께 한 ‘토기장이의 집’ 사역이었다(유승준, 2005). 워싱턴 도심지 빈민 지역에 위치한 이 카페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있다.

(5) 장애아 교육센터

최근 들어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이나 통합수업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들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런 학교들은 장애아들의 수에 비해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장애아 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많은 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교육환경이 요구되어 사설 장애인 교육시설이 많이 설립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지만 고비용과 당장 나타나지 않는 성과 때문인지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사회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적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의 일부라고 본다면 이 사역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제2교회가 2001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삼일특수교육센터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 지역사회의 장애아동들을 위해 인천제2교회가 교회 교육관에 두고 있는 삼일특수교육센터는 시설이나 교육방식에서 우수하여 현재 재학 중인 40명의 학생 외에 많은 대기자가 있다고 한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5명의 교사가 미술, 언어, 인지, 특수체육, 놀이치료 등의 과목을 1:1로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이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교회의 초등부 예산의 10배나 되는 큰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회는 이 교육시설을 전면 개방하여 교회교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주재일, 2013).

서울시민교회가 운영하는 희망의 학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일에 여는 교육시설이다. 20년 전부터 교회에서 운영해 오던 장애아 대상 교회 학교인 희망부를 졸업한 장애아동이 성인이 되면서 갈 곳이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가 설립 운영하고 있다. 희망의 학교에서는 22명의 학생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기도 한다. 그들은 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희망일터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미니 화분이나 각종 화훼 제품을 만들기도 한다(뉴스앤조이 편집국, 2015).

2. 교회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참여

앞에서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협력 혹은 봉사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일부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몇 가지 봉사활동 차원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예장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준비모임, 2015). 마을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의 통전적 삶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경제, 교육 등 전 영역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프로젝트이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왔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들어 교회들도 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마을 만들기 운동은 ‘안전’, ‘생태’, ‘미관’, ‘교류’, ‘자활’의 가치를 중시해온 반면 교회들이 추구하는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는 ‘생명’, ‘치유’, ‘화해’, ‘평화’ 등과 같은 신학적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예장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준비모임, 2015; 조한혜정 외, 2006). 아직 교회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예들이 많지는 않지만 홍성군 신동리 신동리교회와 부천시 약대동 새롬교회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도시마을의 사례인 부천의 새롬교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새롬교회는 시작부터 교회의 목회방향이 교회 안을 향하지 않고 교회 밖을 향했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마을로 나가 마을을 섬기는 교회를 지향했다. 그런데 마을을 섬기는 방법은 사회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교회 설립 초기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IMF이후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을 포함하였고, 지금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새롬교회의 목표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마을사람 모두가 협동과 신뢰를 통해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지역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되었다.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새롬교회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교회가 창립한 1986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를 ‘지역과 아동’의 시기라 했고, 1997년부터 2010년까지를 ‘가족과 마을’ 시기이고, 2010년 이후를 ‘생명과 협동’시기라 구분했다(이원돈, 2015). 지역과 아동 시기에는 지역의 가난한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집, 공부방 등을 운영하며 지역선교의 기초를 놓았고, 가족과 마을 시기에는 경제적 위기로 가정해체의

위험 속에 있던 가정들을 위해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생명과 협동의 시기에는 교회와 마을이 상호 협력하여 마을의 건강한 교육,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새롭교회는 설립 전부터 교회가 들어설 지역을 현장조사 하여 가난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986년에 부천시 약대동에 어린이집을 먼저 개원하였다. 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지역에서 온종일 탁아를 하는 어린이집으로는 최초로 생겨난 새롭어린이집은 맞벌이부부는 물론 어린이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들을 위해 교회는 방과 후 공부방을 개설하였다. 마을 아이들 누구에게나 개방되었던 공부방은 아이들의 학습과 인권교육의 장이자 급식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공부방은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로 바뀌게 되어 부천시의 제1호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다. 현재 마을이 소유하고 교회가 운영하는 새롭지역아동센터는 장애, 비장애, 가난한 아이, 중산층 아이, 다문화가정 아동 등 다양한 아동들이 함께 어울리는 곳이며, 마을의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청소년들과 만나는 장소도 되고 있다(주재일, 2013).

1989년 새롭교회는 ‘약대글방’ 이라는 마을도서관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며 책을 보거나 학습지도를 받는 곳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다 약대글방이 주민자치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름도 ‘신나는가족도서관’으로 바꾸고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은 가족이 함께 와서 책을 읽고 이웃을 만나는 공간이며, 어린이들을 위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여 책 읽는 재미를 알려주기도 한다. 신나는가족도서관에는 미술교실, 요리교실, 이야기교실 등 다양한 교실이 개설되고, 마을을 떠나 전국의 박물관이나 전통마을 탐방, 독서캠프, 생태체험 등을 하기도 한다. 현재 도서관은 지역에서 운영하지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이들 가운데는 교회 교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중반 교회는 지역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해체되는 것을 보고 가정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의 실태를 먼저 파악한 뒤 교회에서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다. 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통해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했다. 가족 산행이나 가족 캠프를 실시하고, 가족세미나를 통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가정

지원센터와 더불어 교회가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관심을 갖게 된 대상이 지역의 노인들과 다문화가정이었다. 먼저 노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은빛날개’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도 참여하는 은빛날개 회원들은 지역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매주 이틀 동안 한글을 가르치는 한글배움터를 개설하기도 하고 미디어교육도 실시했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배운 실력으로 노인들은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금빛날개’를 만들어 그들을 돕고 있다. 이주여성들을 위해 한글교실을 열고 지구촌잔치를 마련하여 각 나라의 음식을 서로 맛보고 다양한 나라의 춤을 함께 배우기도 한다(주재일, 2013).

이러한 활동 외에도 새롭교회는 마을벽화 그리기를 주도하고, 사용하던 물건들을 모아 판매하는 녹색가게와 녹색장터를 열기도 한다. 마을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일도 하였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는 교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달나라토끼’라는 떡까페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 떡까페는 어른들과 주부들에게는 말벗을 찾아 수다 떠는 장소이고, 주민들에게는 정보를 교환하는 곳이며, 청소년들에게는 컴퓨터와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의 다양한 기관들이 힘을 합쳐 ‘뽕사리영화제’라는 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의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여파를 몰아 마을 청년들 중심으로 뽕이 마을방송국이 만들어지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뽕이 청소년 심야식당이 문을 열었다. 마을방송국과 심야식당은 지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마을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이원돈, 2015).

교인 1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 새롭교회가 이처럼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었던 데는 담임 목사인 이원돈 목사의 분명한 목회철학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꾸준한 공부모임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다(주재일, 2013). 교인들을 중심으로 성서와 인문학 그리고 마을 만들기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있고, 마음주민들과 함께하는 ‘수요인문학 카페’가 격주 수요일 개최된다. 또한 지역의 교회들이 약대동 교회협의회라는 연합모임을 만들어 예배와 선교활동에 연대를 하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는데도 힘을 합한 것은 이 일의 성취에 큰 원동력이 되었다. 최근에는 성서아카데미에

서 공부를 하다가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청노답(청소년들은 노는 것이 답) 청소년놀이마당을 준비하게 되었다.

새롭교회의 이원돈 목사는 지금까지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화해와 치유의 사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형성된 마을의 복지·교육·문화 생태계가 앞으로는 회복적 정의운동과 연결되어 마을 전체에 살림을 가져오는 생명과 평화의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원돈, 2015).

3. 교회와 교육시민운동단체와의 협력

(1) 좋은교사운동

좋은교사운동은 기존에 있던 기독교사단체들의 연합운동으로 1998년 제 1회 기독교사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14개의 회원단체들이 있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기독교사 3,9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학생 제자 양육과 학교교사 신우회를 지원하는 학원복음화 사역과 가정방문, 고통 받는 아이와 교사의 일대일 결연, 수업코칭 등을 하는 교육실천운동이 있고, 교원평가제도, 교장공모제, 학습부진아정책, 아동의 쉼 권리 등 중요한 교육정책들을 연구하며 제안하는 교육정책운동도 있다(www.goodteacher.org). 좋은교사운동에서는 매월 ‘좋은교사’라는 교육 잡지를 발간하여 기독교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청이나 교육관련 단체들에게 발송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기독교사대회는 교사들에게 교육의 회복을 위한 비전과 힘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을 위해 일부 교회들이 여러 형태로 지원 혹은 협력하고 있으나 그 협력 관계가 제한적으로 보인다. 교회들이 1년에 이 운동에 후원하는 금액은 천만 원 가량 된다. 이는 이 단체 일 년 예산의 1.2%에 불과하다(2014년 기준). 70여개의 좋은교사운동의 지역모임들이 각 지역의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지역의 목회자들이 지역의 기독교사모임과 학교 내 신우회 모임을 지원하기도 한다. 대전지역에는 대전지역 기독교연합회와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청소년사역을 하고 있고, 서울 동북지역에도 청소년 지도를 위해 은평지역 목회자 모임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운동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색깔이 뚜렷한 교원단체들로 인해 종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교사운동은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비교적 합리적인 주장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화해자의 역할을 한다는 평을 듣는다. 다양한 성격의 기독교사단체들의 연합체로서 활동하지만 큰 갈등이나 분열이 없어 교회연합의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공교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좋은교사운동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해 공적 책임을 다하는 유용한 길이라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

씨드스쿨은 2009년 기독교시민운동단체 대표, 기독교인 교수, 신학교 교수, 목회자들이 설립한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이하 대교단)의 핵심사업이다. 대교단은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이 자기정체성을 발견하고, 재능의 꽃을 피워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돕는 한국교회 청년대학생들의 교육봉사운동” 단체이다(www.seedschool.kr). 씨드스쿨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환경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꿈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는 방과 후 멘토링학교이다. 씨드스쿨에서는 자체 개발한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봉사아카데미에서 훈련된 교육봉사자들이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함께 1:1의 전인적 관계 속에서 비전코칭(1학기)과 학습코칭(1학기)을 중심으로 1년간 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의 덕양중학교 등 6개의 중학교와 나들목교회, 높은뜻정의교회, 한소망교회, 성락성결교회 등 4개의 교회에서 씨앗스쿨이 개설되어 운영되었다(장신근, 2013). 지금까지 씨앗스쿨을 통해 멘토링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1,051명이며 교사(멘토)로 봉사한 사람들은 1,258명이었다(씨앗스쿨 소식지 2015 제2호).

취약계층의 청소년의 교육을 돕는 씨드스쿨 활동에 몇 교회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의 교회들은 직접 씨드스쿨을 개설하기도 하고, 소망교회, 지구촌교회, 서울영동교회, 영락교회, 창동염광교회, 높은뜻교회연합 등은 협력기관 혹은 후원기관으로 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대한민국교육봉사단의 씨드스쿨은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교육봉사 혹은 교육 기부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교육과 복지의 양 측면에서 중요한 취약계

층 아동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초창기 주일학교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 교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08년 창설되어 현재 교육시민운동 단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이다. 이 단체는 입시와 사교육으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이 참여와 나눔으로 입시 고통이 없고 사교육 걱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운동단체이다. 이 단체가 역점을 두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www.noworry.kr).

첫째, 사교육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막연한 불안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사교육과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고 바른 정보를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학입시 담당자들의 강의를 통해 사교육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한다.

둘째, 사교육 걱정을 부추기는 정책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한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권고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감시 기능을 한다. 또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나쁜 정책 스톱’운동을 통해 정부, 지자체, 대학의 입시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

셋째, 사교육과 입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주요대학의 입학전형을 분석하고,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정확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적 정책을 만들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실시한다. ‘선행교육금지법’은 이 단체가 이룬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기독교적 성격을 내세우지 않는 시민운동단체이지만 단체의 대표와 대부분 이사들이 기독교인이며 이 단체가 추구하는 정신이 기독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교회가 이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단지 일부의 교회들이 연간 3,140만 원의 돈을 단체를 위해 후원하고 있다. 이 금액은 이 단체 일년 예산의 2.6%에 해당한다(2014년 기준). 10개의 교회가 이 단체의 후원기관으로 되어 있다.

(4)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교육시민운동단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2006년 개소식을 가진 이 연구소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기독교사립학교의 회복과 갱신을 도우며, 공교육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을 회복하는 주제로 기독교학부모를 세우며,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는 교회교육을 모색하는 활동을 해 왔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해온 활동으로는 학술대회와 도서출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세미나와 캠페인을 통한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 기독교학부모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활동,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학문공동체 구축 등을 수행해왔다(www.cserc.or.kr). 그리고 최근 들어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교육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 ‘입시 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이하 입사기운동)이다. 2008년 시작된 입사기운동은 왜곡된 입시 사교육을 바로잡는 것을 목적으로 캠페인,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서출판 등의 활동을 한다. 이 운동은 본 연구소와 좋은교사운동, 직장사역연구소의 연합운동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다.

둘째, ‘쉽이 있는 교육’ 캠페인이다. 이 운동은 과도한 입시준비와 사교육으로 인해 쉽을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쉽고 안식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2015년 연구소가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기독교적 형태와 일반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독교적 형태는 주일에 교회에서 쉽에 관한 현수막, 소책자, 스티커 등을 나누며 주일성수를 겨냥한 의식개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반적 형태는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운동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27개의 학교들과 53개의 교회들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협력 또는 후원을 하고 있다. 교회가 이 연구소에 후원하는 금액은 연간 9,640만원으로 연구소 일 년 예산의 32.4%를 차지한다. 교회는 연구소를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세미나나 강좌의 공동 주최자가 되거나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연구소가 개발한 연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거나 정식으로 실시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연구소가 실시하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IV. 미래세대를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 간 연계방안

앞에서 현재의 교회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의 실재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여기서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갖기 위해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연계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교육과정의 대폭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하나님나라 혹은 살롬의 원리에 따라 교회교육의 관심영역이 종교/신앙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교육은 교회생활을 위해서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회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교회교육의 사명에는 제자교육과 더불어 시민교육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교육의 핵심이 되는 이웃사랑은 공공성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교육과정에는 성경과 기독교교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십계명에 대한 교육은 십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암송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며 쉼을 얻는 신앙고백과 관계하지만 오늘날에는 사교육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주일에 학원 다니는 문제나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와도 관계한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대한 교육은 경쟁, 평등, 사회정의, 교육제도 등의 사회적 이슈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강영안, 2009: 162-172). 이와 같이 교회교육에는 학교에서의 경쟁과 협력, 가난의 문제, 지역사회의 어려움, 우리사회의 불의, 전쟁,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 가르쳐져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교회교육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활동에는 분명한 기독교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지라도 여기에 분명한 기독교교육의 목표가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하나님나라 운동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들을 교회교육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이웃사랑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라도 개방적인 태도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부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시설을 이용해 마을 주민을 위한 공부방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교회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교과지도와 인성지도를 실시하기도 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 운영 역시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중요한 교육사역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교사에 성도들이 지원하여 학습부진학생 지도, 예체능 지도, 체협학습 지도 등에서 학생들을 도울 수도 있다(김진경 외, 2015: 249). 특히 교회의 성도들이 지역 아동이나 성인 교육에 나서는 것은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정신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교회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회교육이 제자직과 시민직 교육을 함께 수행해야 하고 그 두 가지 교육의 중심에 이웃사랑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로 나가야 한다. 교회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회교육보다는 이웃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장애아 시설이나 노인 요양원은 좋은 교회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가정 주민이 있으면 그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토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 중에 농부, 변호사, 경찰 등 교인들 가운데 찾기 어려운 직업인이 있으면 역시 초청하여 직업에 대해 경험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신앙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는 사회와 공교육의 변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교육의 위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와 관계한다.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 대신 학원과 과외로 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공부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적 생활방식 대신 일탈적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회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학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교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때 그 방식에서도 신앙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독교교육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회는 개별적으로 사회의 변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실천을 수행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공교육의 학부모와 학생이 다수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건전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부를 하는 이유, 학습법, 진로지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적 이슈들에서 건전한 신앙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상화의 기초가 된다. 최근에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나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등과 같은 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좋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학교교육의 변화를 위해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에 대해 바른 신앙적 관점을 가진 교인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다면 건전한 교육활동을 시행하게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조금씩 강조하는, 지자체나 지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 마을학교에 교회가 적극 참여하여 교인들이 강사로 활동한다면 이 역시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김진경 외, 2015: 251-255). 이러한 노력을 좀 더 확대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약대동교회의 사례처럼 교회가 건강한 교육생태계가 되는 마을 만들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사회의 변화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교회는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회들은 아직 선교단체가 아닌 교육시민운동 단체에 후원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교사운동,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등의 단체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왔다. 이들을 후원하는 일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며,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데 기여하는 일이 된다. 물론 협력과 후원단체를 선정할 때나 교육시민운동에 참여하는 방

식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좋은교사운동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서 주도하는 ‘쉽이 있는 교육’ 캠페인에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을 주일에 학원 대신 쉽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은 매우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교회는 그 본질상 사회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교육 역시 그 목적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사회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교회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교육이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오늘날 교회교육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위기의식은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현재 교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사회를 책임질 주역으로 자라도록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교회교육의 목적이 사회와 관련하여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접근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제자직 교육과 시민직 교육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는 교회교육은 성경과 교리교육을 통해 신앙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사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 신앙의 바른 실천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교육이 사회와 소통한다는 것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사회와 관계해야 된다는 의미 뿐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지역사회의 아동을 비롯한 주민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교인과 주민의 교육을 위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협력의 형태를 취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주도해서 하는 교육활동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불우한 이웃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활동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보다 교육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참여한다면 이는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건강한 교육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 된다. 특히 요즘은 마을공동체나 마을

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지자체의 협조로 그 실천이 시도되고 있기에 교회가 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에 좋은 때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임을 자각하고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하는 일은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일 뿐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우리사회에 선포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9).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IVP.
- 강영택 (2007).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서울: SFC.
- 강영택 (2013).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신앙교육.”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109-151.
- 김진경 외 (2015).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위한 제안: 유령에게 맡겨라』. 서울: 문학동네.
- 뉴스앤조이 편집국 (2015). 『이웃과 함께 하는 도시교회2』. 서울: 뉴스앤조이.
- 박상진 (2010). 『한국기독교학교운동』. 서울: 예영
- 박화경 (2006). “생명과 삶을 위한 기독교교육.” (고용수 외)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314-342.
- 씨앗스쿨 (2015). 씨앗스쿨 소식지 제2호.
- 양금희 (1999).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예장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준비모임 (2015). 마을을 살려야 모두가 산다(1). 예장뉴스. 2015.05.20.
- 유승준 (2005).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교회』. 서울: 평단.
- 이원돈 (2015). 치화생(치유와 화해와 생명) 생명 평화 마을만들기. 99회기 예장 예큐 정책협의회 새롭교회 현장사례발표.
- 이진호 (2003).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역사회 섬기는 은평사랑교회.” 『새가정』. 60-64.
- 임희국 (2013). “구한말 기독교학교/신식학교의 설립에서 내한선교사와 토착인 교육자의 상호관계 고찰.” (박상진 외) 『기독교학교, 역사에 길을 묻다』. 서울: 예영. 77-108.
- 장신근 (2013). 『기독교학교교육과 신학교육』. 서울: 동연
- 조주희 (2012). “성암교회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동네교회.” 『선교와 신학』. 30. 161-196.
- 조한혜정 외(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주재일 (2013).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교회』. 서울: 뉴스앤조이.
- Coleman, J. (1989). 두 가지 교육: 제자직과 시민직. M. Boys (ed) 김도일 (역)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Plantinga, C. (2002). *Engaging God's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 Wolterstorff, N. (2004). *Educating for Shalom*. Grand Rapids. MI: Eerdmans.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홈페이지 www.cserc.or.kr

대한민국교육봉사단 홈페이지 www.seedschool.kr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www.noworry.kr

좋은교사운동 홈페이지 www.goodteacher.org

Abstract

The Connection of Churches and their Communities for the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Young-Taek Kang (Woosuk University)

The main concern of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educational responsibility of churches for a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what is the educational mission of the churches for growing future generations and how the churches should make partnerships with the local communities to carry out the mission. Churches should make new relationships with the communities to renew the essence of church education. The first half of the article dealt with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es and communities for church education. This part will be presenting a rationale for the importance of linking the churches and communities needed in order to seek desirable church education. The second half of the article looked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nnection of churches and communities in our society. At the end of the paper, on the basis of this review I suggest some measures for how the church should make efforts to connect with the community for the education of our country's healthy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 connection of church and community, educational mission of church